

2013 이슈페이퍼 << 연구보고서 20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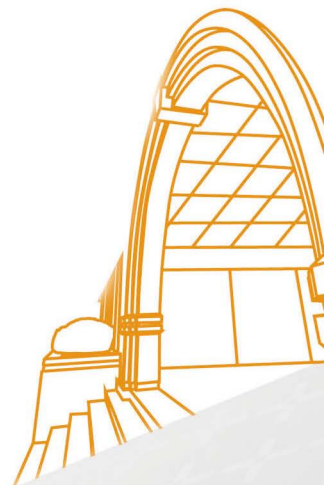
대졸 청년층 취업기회의 성별격차 해소방안

수행과제명 • 미취업 여성청년층의 취업준비활동 효과와
취업지원방안


과제책임자 • 신선미 선임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대졸 청년층 취업기회의 성별격차 해소방안*

수행과제명  미취업 여성청년층의 취업준비활동 효과와 취업지원방안

과제책임자  신선미 선임연구위원

 Tel: 02-3156-7125

 e-mail: seonshin@kwidimail.re.kr

요약

여성 대졸 청년층은 남성 대졸자에 비해 취업기회가 적을 뿐 아니라 정규직과 좋은 일자리와 같은 질적 측면에서의 취업기회 격차는 더욱 크게 나타남. 본고는 취업기회의 성별격차와 청년층의 취업준비활동이 일자리 안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성평등 관점에서의 정책개선 프로세스와 여성 청년층에 특화된 정책 전달 체계의 보강을 제안하였음.

* 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신선미·민무숙·권소영·고혜원(2013). 미취업 여성청년층의 취업준비활동 효과와 취업지원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 배경 및 문제점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 취업난 혹은 실업의 원인과 양상을 밝히 고자 하는 연구들이 급증하였고,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발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취업난은 개선되었다기보다 오히려 더 풀기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는 실정임. 본 연구는 청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실제로 정책대상에게 얼마나 체감되고 있으며, 취업이행과 좋은 일자리로의 안착에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2 조사 및 분석결과

가. 취업기회의 성별격차

2007년 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3년간 전문대와 4년제 대학 졸업자(정규교육기관 재학생, 교대 졸업자, 만 36세 이상 제외)의 80% 이상이, 졸업 후 18/24개월 시점에 취업하였음. 취업자 비율은 전문대 졸업자 집단에서 남성이 3.0%p 높고, 4년제 대학 졸업자 집단에서도 남성이 4.6%p 더 높음.

〈표 1〉 대학 졸업 후 18/24개월 시점의 경제활동상태

(단위: %, %p)

경황상태	전문대 졸업자				4년제 대학 졸업자			
	남자(A)	여자(B)	전체	격차 (A-B)	남자(A)	여자(B)	전체	격차 (A-B)
취업자	83.1	80.1	81.5	3.0	84.5	79.9	82.3	4.6
실업자	7.1	7.0	7.1	0.1	5.9	6.2	6.1	-0.3
비경제활동	9.8	12.8	11.4	-3.0	9.6	13.9	11.6	-4.3
전체	100.0	100.0	100.0	0.0	100.0	100.0	100.0	0.0
졸업자 수(n)	219,167	259,391	478,558	-40,224	394,717	359,675	754,392	35,042

주: 조사시점에 정규교육기관 재학생, 교대 졸업자, 만 36세 이상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조사년도별 가중치를 활용하여 모집단 기준으로 비율을 산출함. 실업자는 구직활동기간 1주 기준.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자료(2008GOMS1, 2009GOMS1, 2010GOMS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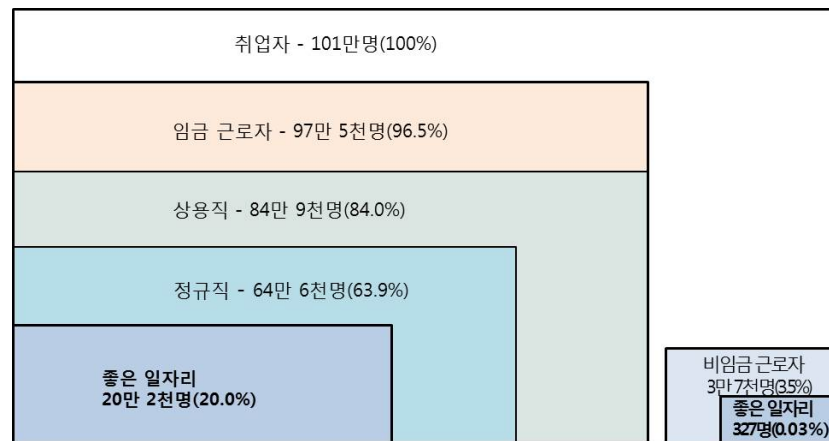
취업기회 자체만이 아니라 정규직과 좋은 일자리 취업기회에서 성별 격차를 분석하기 위해 정규직과 좋은 일자리를 <표 2>와 같이 정의하였음.

〈표 2〉 정규직과 좋은 일자리의 정의

정규직	좋은 일자리
1) 상용직 2) 근로계약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고용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고용이 유지되는 것이 아님. 3)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혹은 몇 주씩 일하는 일일근로자가 아님. 4) 폐업 혹은 고용조정을 하거나 근로자가 특별히 잘못을 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직장에 다닐 수 있음.	1) 정규직 2) 국민연금 혹은 특수직연금, 건강보험 가입자 ¹⁾ 3) 같은 해 졸업한 전문대 및 4년제 일반 대학 졸업자 월평균 임금의 중앙값(180만원) 이상 4) 주당 근로시간 36시간 이상 48시간 이하 ※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2)부터 4)까지 세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에 좋은 일자리로 정의함.

1) 고용보험은 공무원(교육공무원 포함),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자에서 제외하므로 좋은 일자리 정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표 1>의 전체 분석대상자(모집단 가중치 적용)는 123만 3천명인데 그 중 취업자는 101만여 명이며, 취업자 전체를 100으로 하였을 때 임금 근로자는 96.5%(97만 5천 명), 상용직은 84.0%(84만 9천 명), 정규직은 63.9%(64만 6천명), 좋은 일자리 취업자는 20.0%(20만 2천명)임.



주: 취업자이나 정규직 혹은 좋은 일자리 취업자 여부를 알 수 없는 사례들이 있음.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08GOMS1, 2009GOMS1, 2010GOMS1. 각 년도 가중치 활용.

[그림 1] 신규 대졸자의 일자리 안착 상태(졸업 후 18/24개월 시점)

정규직 취업기회의 성별 격차를 보면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4.5%p 더 높고, 4년제 일반대학교 졸업자의 경우에도 남성이 여성보다 14.2%p 더 높음. 4년제 대졸 여성의 정규직 취업자 비율이 44.7%로 특히 낮는데 이는 전문대졸 여성(51.0%)보다도 낮은 수준임.

〈표 3〉 대학 졸업 후 18/24개월 시점에 정규직 일자리 안착 정도

(단위: %, %p)

출신대학 유형	성별	정규직	비정규/ 비임금 근로자	취업자_ 정규직 여부미상	미취업자	합계
전문대	남자(A)	55.5	14.9	12.7	16.9	100.0
	여자(B)	51.0	12.9	16.2	19.9	100.0
	전체	53.1	13.8	14.6	18.5	100.0
	A-B	4.5	2.0	-3.5	-3.0	-
4년제 대학	남자(A)	58.8	12.4	13.3	15.5	100.0
	여자(B)	44.6	17.6	17.7	20.1	100.0
	전체	52.0	14.9	15.4	17.7	100.0
	A-B	14.2	-5.2	-4.4	-4.6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08GOMS1, 2009GOMS1, 2010GOMS1. 각 년도 가중치 활용.

좋은 일자리 취업기회 역시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데, 전문대 졸업자 집단의 경우 4.1%p, 4년제 일반대학교에서도 9.7%p 남성이 더 높음. 전문대보다 4년제 일반대학교에서 좋은 일자리 취업기회의 성별 격차가 크게 나타남. 청년층 취업난의 문제는 취업여부 자체보다는 정규직 일자리 혹은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점에 있음.

〈표 4〉 대학 졸업 후 18/24개월 시점에 좋은 일자리 안착 정도

(단위: %, %p)

출신대학 유형	성별	좋은 일자리	기타 일자리	취업자_ 좋은 일자리여부 미상	미취업자	합 계
전문대	남자(A)	13.3	53.1	16.7	16.9	100.0
	여자(B)	9.2	52.5	18.4	19.9	100.0
	전체	11.1	52.8	17.6	18.5	100.0
	A-B	4.1	0.6	-1.7	-3.0	-

출신대학 유형	성별	좋은 일자리	기타 일자리	취업자_ 좋은 일자리여부 미상	미취업자	합 계
4년제 대학	남자(A)	24.4	43.5	16.5	15.6	100.0
	여자(B)	14.7	44.3	21	20.1	100.0
	전체	19.8	43.9	18.6	17.7	100.0
	A-B	9.7	-0.8	-4.5	-4.5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08GOMS1, 2009GOMS1, 2010GOMS1. 각 년도 가중치 활용.

이상에서 살펴본 취업기회의 성별 격차를 요약해보면, 여성 대졸자는 남성 대졸자에 비해 취업기회가 적을 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이 좋은 정규직과 좋은 일자리 기회는 더욱 더 적음. 4년제 대졸자를 기준으로 할 때 졸업 후 18/24개월 시점에 좋은 일자리 취업자 비율은 남성 24.4%, 여성 14.7%로 두 집단 간에 9.7%p의 차이가 있으며, 정규직 취업자 비율도 남성이 58.8%, 여성이 44.6%로 14.2%p의 차이가 있음. 즉, 성별에 따른 대졸 청년층 취업기회의 격차는 취업 자체보다 정규직과 좋은 일자리 기회에서 더 크게 나타남.

〈표 5〉 신규 대졸자의 취업 기회의 성별 격차 분석결과 요약

취업기회 구분	전문대 졸업자				4년제 대학 졸업자			
	남자(A)	여자(B)	전체	격차 (A-B)	남자(A)	여자(B)	전체	격차 (A-B)
취업자 비율	83.1	80.1	81.5	3.0	84.5	79.9	82.3	4.6
정규직 취업자 비율	55.5	51.0	53.1	4.5	58.8	44.6	52.0	14.2
좋은 일자리 취업자 비율	13.3	9.2	11.1	4.1	24.4	14.7	19.8	9.7

나. 취업준비활동이 일자리 안착에 미치는 효과

1) 취업준비활동 참여현황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재학생들의 취업준비활동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하는 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2008GOMS1, 2009GOMS1, 2010 GOMS1)를 활용하였음. 분석대상자의 범위는 2007년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조사시점에 35세 이하이고, 정규교육기관(대학원 졸업)에 통학하지 않는 자임. 취업준비활동의 분석범위는 1) 재학 중 취업준비프로그램 참여 여부, 2) 재학 중 일자리 참여경험, 3) 재학 중 구직활동 여부, 4) 재학 중 직업교육훈련 참여 여부, 5) 자격증 취득여부, 6) 시험준비 여부의 6가지 활동임. 분석결과 요약은 <표 6>과 같음.

<표 6> 취업준비활동 유형별 참여 경험자 비율

취업준비활동 유형	전문대				4년제			
	남자(A)	여자(B)	전체	격차(A-B)	남자	여자	전체	격차(A-B)
일자리경험	58.4	60.1	59.4	-1.7	70.2	74.0	72.1	-3.8
- 취업준비 목적	5.3	7.6	6.6	-2.3	10.2	13.7	11.9	-3.5
- 기타 목적	53.1	52.5	52.8	0.6	60.0	60.3	60.2	-0.3
자격증 취득	56.3	64.0	60.5	-7.7	57.5	59.6	58.5	-2.1
구직활동	49.6	54.2	52.1	-4.6	57.2	58.1	57.6	-0.9
진로개발 및 취업준비 프로그램	46.1	55.7	51.3	-9.6	54.6	58.5	56.5	-3.9
공무원 채용시험 등 시험준비	7.9	6.3	7.0	1.6	21.8	25.5	23.6	-3.7
직업훈련	5.5	5.8	5.6	-0.3	6.7	7.7	7.1	-1.0

주: 분석대상자 중 대학 재학 중에 각 취업준비활동에 참여한 경험자 비율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08GOMS1, 2009GOMS1, 2010GOMS1. 각 년도 가중치 활용.

전문대 학생들의 취업준비활동을 분석한 결과, 재학 중 자격증 취득자 비율(60.5%)이 가장 높고, 재학 중 일자리 참여경험(59.4%), 졸업 전후 구직활동(52.1), 취업준비 프로그램 참여(51.3%)가 활발했으나, 재학 중 직업훈련(5.6%)이나 시험준비 경험(7.0%)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성별 차이를 보면 대체로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취업준비활동을 열심히 하였고, 자격증 취득자 비율의 경우 여학생(64.0%)이 남학생(56.3%)에 비해 약 7%p 더 높게 나타남. 취업준비 프로그램에 한 가지 이상 참여한 학생의 경우 여학생(55.7%)이 남학생(46.1%)에 비해 9.6%p 가 높게 나타나 이 역시 성별 차이가 컸음. 재학 중 구직활동 참여자 비율 역시 여학생(54.2%)이 남학생(49.6%)에 비해 4.6%p 높은 반면, 재학 중 일자리 경험이나 시험 준비 경험은 근소한 차이를 보였고, 직업교육 훈련 경험은 남녀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 학생들의 취업준비활동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전문대 학에 비하여 4년제 학생들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음. 재학 중 일자리 참여경험(72.1%)이 가장 많고, 재학 중 자격증 취득(58.5%), 졸업 전후 구직활동(57.6%), 취업준비 프로그램(56.5%)에도 절반이 참여하고 있으나, 직업훈련(7.1%)이나 시험준비 경험(23.6%)은 상대적으로 적음. 시험준비는 전문대보다 4년제 대학생이 많이 참여하고, 특히 4년제 대학 여학생의 참여율(25.5%)이 높음.

전문대와 마찬가지로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취업준비활동에 더 활발히 참여하였음. 취업준비 프로그램에 한 가지 이상 참여한 남학생은 54.6%인데 불과한 데 비하여 여학생은 58.5%가 참여하여 약 4%p 차이를 보임. 재학 중 시험준비 경험도 여학생(25.5%)이 남학생(21.8)에 비하여 약 3.7%p 높고, 재학 중 자격증 취득자 비율도 여학생(59.6%)이 남학생(57.5%)에 비해 약 2.1%p 높음. 반면에 졸업 전후 구직활동은 여학생(58.1%)과 남학생(57.2%)의 참여가 비슷하고, 직업훈련 경험자 비율도 남녀가 비슷하나 매우 낮음.

2) 취업준비활동이 취업여부에 미치는 효과

인적특성과 대학 및 전공 특성을 고려하여도 취업준비활동이 취업여부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독립변수로 6가지 취업준비활동 이외에 인적특성과 출신대학 및 전공계열 특성에 관한 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였음. 또한 취업준비활동의 효과를 집단별로 비교하기 위해 분석대상을 전문대 남자, 전문대 여자, 4년제 대학 남자, 4년제 대학 여자 졸업자,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음.

전문대 졸업자의 취업준비활동이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해 본 결과, 여자의 경우 구직활동 경험은 취업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나머지 5가지 취업준비활동 경험은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남자의 경우 일자리 경험, 졸업 전후의 구직활동 경험, 졸업 이후 직업훈련 경험이 취업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긍정적 영향을 주는 활동은 재학 중 진로개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에서 도움을 받은 경험, 재학 중 직업훈련 경험, 자격증 취득경험, 시험합격 경험으로 나타남. 남녀 모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는 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적어도 전문대 졸업자들에게는 취업준비활동이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표 7〉 취업여부 결정요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전문대 졸업자)

독립 변수		남자		여자	
		B	Exp (B)	B	Exp (B)
인적특성	어머니학력_대졸 이상	-.127***	.881	-.060**	.942
	어머니학력_고졸 혹은 고교중퇴	-.180***	.835	.068***	1.070
	부모소득_100-200만원 미만	-.312***	.732	.215***	1.239
	부모소득_200-300만원 미만	-.347***	.707	.335***	1.398
	부모소득_300-400만원 미만	-.278***	.757	.105***	1.111

독립변수		남자		여자	
		B	Exp(B)	B	Exp(B)
	부모소득_400-500만원 미만	-.082**	.921	.167***	1.181
	부모소득_500만원 이상	-.080**	.923	.342***	1.408
	졸업시점/2008년 2월/2009년 8월	-.151***	.860	-.227***	.797
	졸업시점/2009년 2월/2010년 8월	.183***	1.201	-.017	.983
출신대학 및 전공계열 특성	대학역량_4년지원받음	.166***	1.181	.090***	1.094
	수도권여부_수도권대학	.128***	1.136	.056***	1.058
	전공계열_사회	.155***	1.167	.080***	1.084
	전공계열_교육	-.046	.955	.591***	1.805
	전공계열_공학	.354***	1.425	.084**	1.088
	전공계열_자연	.101*	1.107	.220***	1.246
	전공계열_의약학	.733***	2.081	.744***	2.103
	전공계열_예체능	.263***	1.301	-.231***	.794
	졸업성적_상	.642***	1.901	.204***	1.226
	졸업성적_중	.352***	1.422	.318***	1.374
	복수(부, 연계)전공_이수함	.087	1.090	.034	1.035
취업준비 활동경험	취업프로그램참여여부_참여함	.114***	1.120	.186***	1.205
	재학 중 일자리_취업준비 목적	-.082**	.921	.126***	1.134
	재학 중 일자리_비 취업준비 목적	-.089***	.915	.174***	1.190
	졸업 전후 구직활동_했음	-.083***	.920	.021	1.021
	직업훈련경험_재학 중부터	.183***	1.200	.242***	1.273
	직업훈련경험_졸업 후에만	-.523***	.593	.182***	1.200
	자격증_졸업 전 1개 이상 취득	.163***	1.177	.422***	1.525
	자격증_졸업 후에만 취득	.261***	1.298	.372***	1.451
	시험경험_합격했음	1.049***	2.856	.331***	1.393
	시험경험_합격못함	-1.226***	.293	-.999***	.368
상수항		1.426	4.162	.375	1.455
모형계수	Chi-square	8,721.737		11,086.842	

독립변수		남자		여자	
		B	Exp(B)	B	Exp(B)
전체 테스트	df	30		30	
	sig.	P < .001		P < .001	
모형 요약	-2Log우도	174,637.002		226,563.458	
	Nagelkerke R square	0.071		0.072	
예측정확도(%)		83.4		80.4	
N(명)		6,783		5,982	

*** P < .001, ** P < .01, * P < .05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준비활동이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해 본 결과, 성별 차이가 전문대에 비하여 작게 나타났다. 남녀 모두 취업준비 목적이 아닌 재학 중 일자리 경험은 부정적 효과를 가져왔으며, 남자는 취업준비 목적의 일자리 경험이 졸업 후 취업확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비해 여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자격증을 재학 중 취득한 집단은 자격증 취득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남녀 모두 취업확률이 높지만, 자격증을 졸업 이후에만 취득한 경우 남자에게는 부정적 영향을 여자에게는 긍정적 영향을 미침. 공무원 시험 등 시험 준비 경험은 합격했을 경우에만 긍정적 영향이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크며, 이는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재학 중 혹은 졸업 전후의 취업준비활동은 취업에 부정적 영향보다 긍정적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베타값을 살펴보면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취업준비활동이 졸업 후 취업에 긍정적 효과가 보다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음.

〈표 8〉 취업여부 결정요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4년제 대학 졸업자)

독립변수		남자		여자	
		B	Exp(B)	B	Exp(B)
인적특성	어머니학력_대졸 이상	-.093***	.911	-.065***	.937
	어머니학력_고졸 혹은 고교중퇴	-.037**	.964	-.003	.997
	부모소득_100-200만원 미만	-.297***	.743	.006	1.006
	부모소득_200-300만원 미만	-.315***	.730	.034	1.035
	부모소득_300-400만원 미만	-.331***	.718	-.056**	.946
	부모소득_400-500만원 미만	-.256***	.774	-.014	.986
	부모소득_500만원 이상	-.089***	.915	.187***	1.205
	졸업시점/2008년 2월/2009년 8월	-.273***	.761	-.354***	.702
	졸업시점/2009년 2월/2010년 8월	-.033**	.967	-.048***	.953
출신대학 및 전공계열 특성	대학역량_4년지원받음	.199***	1.220	.092***	1.096
	수도권여부_수도권대학	.349***	1.417	.121***	1.129
	전공계열_사회	.076***	1.079	.046**	1.047
	전공계열_교육	.027	1.027	-.177***	.838
	전공계열_공학	.322***	1.380	.200***	1.222
	전공계열_자연	.225***	1.252	.038*	1.039
	전공계열_의약학	1.603***	4.968	.939***	2.558
	전공계열_예체능	.218***	1.243	.068***	1.070
	졸업성적_상	.381***	1.463	.272***	1.313
	졸업성적_중	.243***	1.275	.149***	1.160
	복수(부, 연계)전공_이수함	.174***	1.190	.150***	1.162
취업준비 활동경험	취업프로그램참여여부_참여함	.157***	1.170	.216***	1.241
	재학 중 일자리_취업준비 목적	.293***	1.340	-.009	.991
	재학 중 일자리_비 취업준비 목적	-.049***	.953	-.023*	.977
	졸업 전후 구직활동_했음	.257***	1.292	.345***	1.413
	직업훈련경험_재학 중부터	.422***	1.525	.386***	1.471
	직업훈련경험_졸업 후에만	.267***	1.307	.095***	1.099

독립변수		남자		여자	
		B	Exp(B)	B	Exp(B)
	자격증_졸업 전 1개 이상 취득	.154***	1.166	.182***	1.199
	자격증_졸업 후에만 취득	-.056**	.946	.313***	1.367
	시험경험_합격했음	.455***	1.576	.821***	2.273
	시험경험_합격못함	-1.491***	.225	-1.207***	.299
상수항		1.469	4.347	.985	2.677
모형계수 전체 테스트	Chi-square	32,875.771		26,463.986	
	df	30		30	
	sig.	P < .001		P < .001	
모형요약	-2Log우도	292,663.395		315,101.685	
	Nagelkerke R square	0.144		0.118	
예측정확도(%)		84.8		80.6	
N(명)		17,774		13,076	

*** P < .001, ** P < .01, * P < .05

3) 취업준비활동이 정규직 취업여부에 미치는 효과

인적특성과 대학 및 전공 특성을 고려하여도 취업준비활동이 정규직 취업여부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하였음. 독립변수는 <표 7> 및 <표 8>과 동일하며, 종속변수만 정규직 취업자(1)와 비정규직, 비임금근로자 및 미취업자(0)로 구분하였음. 취업준비활동의 효과를 집단별로 비교하기 위해 분석대상을 앞서와 같이 4 집단으로 구분하였음.

전문대 졸업자의 취업준비활동이 정규직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해 본 결과, 여자의 경우 구직활동 경험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나머지 5가지 취업준비활동 경험은 정규직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베타값도 남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반면, 남자의 경우는 졸업 전후의 구직활동 경험과 졸업 후의 직업훈련 경

험이 추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학 중 취업준비 목적의 일자리 경험은 긍정적 효과도 부정적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음. 남녀 모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는 정규직 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적어도 전문대 졸업자들에게는 취업준비활동이 남자보다는 여자의 정규직 취업에 전반적으로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표 9〉 정규직 취업여부 결정요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전문대 졸업자)

독립변수		남자		여자	
		B	Exp(B)	B	Exp(B)
인적특성	어머니학력_대졸 이상	-.059**	.942	-.130***	.878
	어머니학력_고졸 혹은 고교중퇴	-.001	.999	.016	1.016
	부모소득_100-200만원 미만	-.348***	.706	.165***	1.180
	부모소득_200-300만원 미만	-.246***	.782	.233***	1.262
	부모소득_300-400만원 미만	-.233***	.793	.185***	1.203
	부모소득_400-500만원 미만	-.158***	.853	.164***	1.179
	부모소득_500만원 이상	-.001	.999	.348***	1.416
	졸업시점/2008년 2월/2009년 8월	-.016	.984	-.100***	.904
	졸업시점/2009년 2월/2010년 8월	.286***	1.331	-.083***	.920
출신대학 및 전공계열 특성	대학역량_4년지원받음	.164***	1.178	.197***	1.218
	수도권여부_수도권대학	.006	1.006	-.054***	.947
	전공계열_사회	.053	1.054	.276***	1.318
	전공계열_교육	-.829***	.437	.988***	2.687
	전공계열_공학	.434***	1.543	.309***	1.362
	전공계열_자연	.278***	1.320	.362***	1.436
	전공계열_의약학	.751***	2.120	1.124***	3.077
	전공계열_예체능	-.124***	.883	-.135***	.874
	졸업성적_상	.413***	1.512	.092***	1.096
	졸업성적_중	.221***	1.247	.203***	1.225

독립변수		남자		여자	
		B	Exp(B)	B	Exp(B)
	복수(부, 연계)전공_이수함	-.299***	.742	-.171***	.843
취업준비 활동경험	취업프로그램참여여부_참여함	.120***	1.127	.138***	1.148
	재학 중 일자리_취업준비 목적	-.030	.970	.045*	1.046
	재학 중 일자리_비 취업준비 목적	.039***	1.039	.090***	1.094
	졸업 전후 구직활동_했음	-.037**	.964	-.047***	.954
	직업훈련경험_재학 중부터	.066**	1.068	.243***	1.275
	직업훈련경험_졸업 후에만	-.053**	.948	.256***	1.292
	자격증_졸업 전 1개 이상 취득	.159***	1.172	.526***	1.693
	자격증_졸업 후에만 취득	.218***	1.244	.408***	1.503
	시험경험_합격했음	.929***	2.531	.265***	1.303
	시험경험_합격못함	-1.030***	.357	-1.140***	.320
상수항		.154	1.167	-.633	.531
모형계수 전체 테스트	Chi-square	9,111,666		18,029,249	
	df	30		30	
	sig.	P < .001		P < .001	
모형요약	-2Log우도	223,600,312		250,245,499	
	Nagelkerke R square	0.068		0.117	
예측정확도(%)		65.5		63.7	
N(명)		5,905		5,008	

*** P < .001, ** P < .01, * P < .05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준비활동이 정규직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해 본 결과,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전문대 분석결과와 달리 크게 다르게 나타나지는 않았음.

즉, 여자의 경우는 재학 중 취업준비 목적이 아닌 일자리 경험의 경우만 정규직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나머지 활동은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남자의 경우 여자와 동일하게 재학 중

취업준비 목적이 아닌 일자리 경험과 졸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이 정규직 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활동들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타났음.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전문대 졸업자들에 비해 4년제 졸업자들에게 졸업 전후 취업준비활동이 정규직 취업에 보다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또한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전반적으로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임.

〈표 10〉 정규직 취업여부 결정요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4년제 대학 졸업자)

독립변수		남자		여자	
		B	Exp(B)	B	Exp(B)
인적특성	어머니학력_대졸 이상	-.013	.987	.029*	1.030
	어머니학력_고졸 혹은 고교중퇴	.055***	1.056	.053***	1.054
	부모소득_100-200만원 미만	-.372***	.690	-.067**	.935
	부모소득_200-300만원 미만	-.269***	.764	.067***	1.070
	부모소득_300-400만원 미만	-.248***	.780	.083***	1.087
	부모소득_400-500만원 미만	-.209***	.812	.210***	1.233
	부모소득_500만원 이상	-.107***	.898	.227***	1.255
	졸업시점/2008년 2월/2009년 8월	-.047***	.954	-.025*	.975
	졸업시점/2009년 2월/2010년 8월	-.015	.985	.039***	1.039
출신대학 및 전공계열 특성	대학역량_4년지원받음	.252***	1.287	.071***	1.073
	수도권여부_수도권대학	.191***	1.210	.123***	1.131
	전공계열_사회	.491***	1.634	.288***	1.334
	전공계열_교육	-.427***	.652	-.178***	.837
	전공계열_공학	.774***	2.167	.385***	1.470
	전공계열_자연	.336***	1.400	.062***	1.064
	전공계열_의약학	1.037***	2.821	1.160***	3.189
	전공계열_예체능	-.135***	.874	-.450***	.638
	졸업성적_상	.347***	1.415	.229***	1.258
	졸업성적_중	.233***	1.263	.136***	1.146

독립변수		남자		여자	
		B	Exp(B)	B	Exp(B)
	복수(부, 연계)전공_이수함	.197***	1.218	-.030**	.971
취업준비 활동경험	취업프로그램참여여부_참여함	.247***	1.280	.290***	1.336
	재학 중 일자리_취업준비 목적	.017	1.017	.076***	1.079
	재학 중 일자리_비 취업준비 목적	-.140***	.869	-.104***	.901
	졸업 전후 구직활동_했음	.609***	1.839	.538***	1.713
	직업훈련경험_재학 중부터	.319***	1.376	.210***	1.234
	직업훈련경험_졸업 후에만	.455***	1.575	.200***	1.222
	자격증_졸업 전 1개 이상 취득	.197***	1.218	.195***	1.216
	자격증_졸업 후에만 취득	-.105***	.900	.166***	1.181
	시험경험_합격했음	1.244***	3.469	1.695***	5.447
	시험경험_합격못함	-1.192***	.304	-1.200***	.301
	상수항	-.246	.782	-.709	.492
모형계수 전체 테스트	Chi-square	45,702.391		41,728.591	
	df	30		30	
	sig.	P < .001		P < .001	
모형요약	-2Log우도	366,531.198		347,052.448	
	Nagelkerke R square	0.182		0.184	
예측정확도(%)		72.6		65.5	
N(명)		15,379		10,731	

*** P < .001, ** P < .01, * P < .05

4) 취업준비활동이 좋은 일자리 취업여부에 미치는 효과

취업준비활동이 좋은 일자리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도 동일한 독립변수를 투입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음. 종속변수는 좋은 일자리 취업자(1)와 기타 일자리 취업자 및 미취업자(0)로 구분함.

전문대 졸업자의 취업준비활동이 좋은 일자리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결과, 정규직 취업과는 달리 좋은 일자리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취업준비활동이 많이 나타났음. 즉, 남자의 경우는 좋은 일자리 취업에 유리한 취업준비활동은 재학 중 유익한 진로개발 및 취업 준비 프로그램 참여, 재학 중 직업훈련 경험, 졸업 전 자격증 취득, 시험 준비하여 합격한 경우에만 해당되고 나머지 다른 활동들은 오히려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여자의 경우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취업준비활동이 많은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활동들은 재학 중 혹은 졸업 후 직업훈련경험, 재학 중 혹은 졸업 후 자격증 취득경험, 시험합격 경험에 한정되게 나타남.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적어도 전문대 졸업자들에게는 좋은 일자리 취업이 취업준비활동과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효과적인 취업준비활동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표 11〉 좋은 일자리 취업여부 결정요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전문대 졸업자)

독립변수		남자		여자	
		B	Exp(B)	B	Exp(B)
인적특성	어머니학력_대졸 이상	.208***	1.232	.037	1.038
	어머니학력_고졸 혹은 고교중퇴	-.061***	.941	-.162***	.850
	부모소득_100-200만원 미만	-.210***	.811	.266***	1.305
	부모소득_200-300만원 미만	-.176***	.838	.437***	1.548
	부모소득_300-400만원 미만	-.073**	.929	.422***	1.525
	부모소득_400-500만원 미만	-.007	.993	.358***	1.430
	부모소득_500만원 이상	.086**	1.090	.705***	2.024
	졸업시점/2008년 2월/2009년 8월	.286***	1.331	-.081***	.922
	졸업시점/2009년 2월/2010년 8월	.207***	1.231	.171***	1.187
출신대학 및 전공계열 특성	대학역량_4년지원받음	-.007	.993	.103***	1.109
	수도권여부_수도권대학	.094***	1.099	.578***	1.783
	전공계열_사회	-.151**	.860	.087*	1.091
	전공계열_교육	.024	1.024	-1.040***	.354

독립변수		남자		여자	
		B	Exp(B)	B	Exp(B)
	전공계열_공학	.026	1.026	.064	1.066
	전공계열_자연	-.408***	.665	-.373***	.689
	전공계열_의약학	.613***	1.846	1.520***	4.571
	전공계열_예체능	-.587***	.556	-1.263***	.283
	졸업성적_상	.504***	1.656	.396***	1.485
	졸업성적_중	.249***	1.282	.097***	1.102
	복수(부, 연계)전공_이수함	-.162**	.850	-.484***	.616
취업준비 활동경험	취업프로그램참여여부_참여함	.134***	1.143	-.101***	.904
	재학 중 일자리_취업준비 목적	-.557***	.573	-.068*	.934
	재학 중 일자리_비 취업준비 목적	-.290***	.749	-.250***	.779
	졸업 전후 구직활동_했음	-.220***	.803	-.174***	.840
	직업훈련경험_재학 중부터	.187***	1.205	.274***	1.315
	직업훈련경험_졸업 후에만	.035	1.036	.433***	1.542
	자격증_졸업 전 1개 이상 취득	.178***	1.194	.213***	1.238
	자격증_졸업 후에만 취득	-.123***	.885	.317***	1.372
	시험경험_합격했음	.262***	1.299	.843***	2.323
	시험경험_합격못함	-.411***	.663	-.709***	.492
상수항		-1.736	.176	-3.074	.046
모형계수 전체 테스트	Chi-square	5,405.308		17,778.385	
	df	30		30	
	sig.	P < .001		P < .001	
모형요약	-2Log우도	146,069.015		120,950.794	
	Nagelkerke R square	0.053		0.171	
예측정확도(%)		83.7		88.6	
N(명)		5,658		4,885	

*** P < .001, ** P < .01, * P < .05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준비활동이 좋은 일자리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해 본 결과, 전문대 졸업자 집단에 비해 부정적 효과를 가지는 취업준비활동이 줄어드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재학 중 일자리 경험(취업준비 목적과 무관함), 졸업 이후 자격증 취득, 그리고 시험을 준비했으나 불합격한 경우만 좋은 일자리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나머지 활동은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는 재학 중 취업준비 목적이 아닌 일자리 경험, 졸업 이후 취득한 자격증, 시험준비 후 불합격 경험이 좋은 일자리 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활동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전문대 졸업자들에 비해 4년제 졸업자들에게 대학 재학 중과 졸업 전후의 취업준비활동이 좋은 일자리 취업에 보다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전반적으로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표 12〉 좋은 일자리 취업여부 결정요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4년제 대학 졸업자)

독립변수		남자		여자	
		B	Exp(B)	B	Exp(B)
인적특성	어머니학력_대졸 이상	-.043**	.958	.252***	1.286
	어머니학력_고졸 혹은 고교중퇴	.071***	1.073	.111***	1.117
	부모소득_100-200만원 미만	-.170***	.844	-.172***	.842
	부모소득_200-300만원 미만	-.010	.990	.153***	1.166
	부모소득_300-400만원 미만	.029	1.029	.100***	1.106
	부모소득_400-500만원 미만	.048**	1.049	.224***	1.251
	부모소득_500만원 이상	.077***	1.081	.416***	1.515
	졸업시점/2008년 2월/2009년 8월	.345***	1.412	.096***	1.101
출신대학 및 전공계열	졸업시점/2009년 2월/2010년 8월	.181***	1.199	.029*	1.029
	대학역량_4년지원받음	.251***	1.285	.168***	1.183
	수도권여부_수도권대학	.224***	1.251	.517***	1.677
	전공계열_사회	.236***	1.266	.065***	1.067

독립변수		남자		여자	
		B	Exp(B)	B	Exp(B)
특성	전공계열_교육	-.062*	.940	.163***	1.177
	전공계열_공학	.276***	1.318	.384***	1.468
	전공계열_자연	.095***	1.100	-.121***	.886
	전공계열_의약학	.230***	1.259	1.089***	2.973
	전공계열_예체능	-.539***	.583	-1.043***	.352
	졸업성적_상	.281***	1.324	.394***	1.483
	졸업성적_중	.155***	1.168	.208***	1.232
	복수(부, 연계)전공_이수함	.207***	1.230	.069***	1.072
취업준비 활동경험	취업프로그램참여여부_참여함	.128***	1.137	.320***	1.378
	재학 중 일자리_취업준비 목적	-.153***	.858	.053**	1.054
	재학 중 일자리_비 취업준비 목적	-.188***	.829	-.143***	.867
	졸업 전후 구직활동_했음	.241***	1.272	.293***	1.341
	직업훈련경험_재학 중부터	.109***	1.116	.077***	1.080
	직업훈련경험_졸업 후에만	.247***	1.280	.128***	1.137
	자격증_졸업 전 1개 이상 취득	.101***	1.107	.038**	1.039
	자격증_졸업 후에만 취득	-.118***	.888	-.045*	.956
	시험경험_합격했음	.368***	1.446	1.148***	3.152
	시험경험_합격못함	-.788***	.455	-.905***	.404
상수항		-1.708	.181	-2.693	.068
모형계수 전체 테스트	Chi-square	15,842.487		25,723.331	
	df	30		30	
	sig.	P < .001		P < .001	
모형요약	-2Log우도	365,774.638		234,889.542	
	Nagelkerke R square	0.070		0.147	
예측정확도(%)		70.9		81.1	
N(명)		14,838		10,317	

*** P < .001, ** P < .01, * P < .05

5) 취업준비활동의 효과 분석 요약

취업준비활동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정규직 취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좋은 일자리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전문대 졸업자에 비해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준비활동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고, 남성보다 여성 집단에서 긍정적 효과가 더 광범위하게 나타났음.

분석대상을 전문대졸 남녀, 4년제 대학 졸업 남녀, 4개 집단으로 구분했을 때, 모든 집단에서 취업여부, 정규직 취업여부, 좋은 일자리 취업여부에 일관되게 긍정적 효과가 있는 취업준비활동은 1) 재학 중 진로개발 및 취업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도움을 받은 경험, 2) 재학 중 직업훈련 경험, 3) 졸업 전 자격증 취득 경험, 그리고 4) 공무원 시험 등의 시험준비 후 합격경험임.

분석대상을 전문대 졸업자로 한정하였을 때, 취업여부, 정규직 취업여부, 좋은 일자리 취업여부에 일관되게 긍정적 효과가 있는 취업준비활동은 1) 재학 중 직업훈련 경험, 2) 재학 중 자격증 1개 이상 취득, 3) 공무원 시험 등의 시험준비 후 합격경험임. 진로개발 및 취업준비 프로그램도 전반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나 여자 졸업자가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는데 오히려 부정적 효과가 나타났음. 자격증을 졸업 후에만 취득한 것도 전반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남자 졸업자가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는데 부정적 효과가 있었음.

분석대상을 4년제 대학 졸업자로 한정하였을 때, 취업여부, 정규직 취업여부, 좋은 일자리 취업여부에 일관되게 긍정적 효과가 있는 취업준비활동은 1) 재학 중 진로개발 및 취업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도움을 받은 경험, 2) 졸업 전후 구직활동, 3) 졸업 전, 그리고 졸업 후의 직업훈련 경험, 4) 졸업 전에 자격증 1개 이상 취득 경험, 5) 공무원 시험 등의 시험준비 후 합격경험임.

4개 분석대상 집단에서 취업여부, 정규직 취업여부, 좋은 일자리 취업여부에 일관되게 부정적 효과가 있는 취업준비활동은 공무원 시험 등의

시험준비 후 불합격경험이 유일함. 그러나 4년제 대학 졸업자로 한정할 경우 취업준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재학 중 일자리 경험도 일관되게 부정적 효과가 있었음.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여성청년층은 학업성취도가 남성보다 높고, 취업준비활동도 남성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취업준비활동의 효과도 여자 대졸자에게 더 긍정적임. 특히 4년제 대학 여자 대졸자의 정규직 및 좋은 일자리 취업기회에도 긍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 대졸자, 특히 4년제 대학 여자 대졸자는 취업기회가 남자보다 적고, 정규직과 좋은 일자리 취업 기회는 더욱 더 적음.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음. 첫째, 취업기회 획득에서 발생하는 성별 격차는 여성청년층의 역량이나 노력 부족보다는 노동시장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차별 때문임. 둘째, 여성인력의 저활용 문제는 30-40대의 경력단절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을 갓 졸업한 신규 대졸여성 집단에서도 나타나는 문제이며, 이는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에 중요한 장애요인임. 셋째, 취업준비활동이 특히 여성 청년층에게서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청년고용정책이 취업기회의 성별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격차는 아직도 상당하며 특히 정규직과 좋은 일자리일수록 격차가 더 큼.

3 정책제언

가. 청년고용정책에 여성참여 현황

청년고용정책으로 14개 부처에서 50개 세부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정책유형과 정책대상별로 구분하면 <표 13>과 같음. 청년고용정책에 여성참여 현황(2012년 기준)을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일부 사

업은 여성 참여현황 파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할 수 없었음.

- 청년직장체험 프로그램 68.5%
- 중소기업인턴제 35.5%
-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37.4%
- 신규 실업자 훈련 76.6%
-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22.0%
- 글로벌 취업지원사업 60.2%

〈표 13〉 정책유형 및 정책대상별 주요 청년고용정책

정책 유형	정 책 대 상		
	재학생	졸업예정자	청년 미취업자 (졸업자)
진로개발 및 취업지원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취업지원관제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중 취업지원사업 -여대생커리어개발 지원사업	-청년취업아카데미 -취업성공패키지	
	-창업교육(창업아카데미, YES 리더스특강, LINC사업 일부 등) -창업공모전		
직업능력 개발훈련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훈련 -특성화고-전문대 연계기술사관육성사업	-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훈련 -신규실업자 훈련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해외취업(맞춤형, K-move 스쿨)	
미취업자 고용확대	-	-청년인턴사업(중소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해외취업(GE4U, 맞춤형, K-move 스쿨) -해외인턴 -청년창업 사업화지원	

나. 정책제언

제안1) 정책대상에 관한 제언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청년지원정책의 주요 정책대상은 재학생(졸업예정자 포함)과 미취업자임. 그러나 청년층 취업난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통은 미취업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함. 15-29세 청년층 인구의 6-7%만이 실업자이고 대학 졸업 후 18/24개월 시점이면 80% 이상이 취업하고 있음. 문제는 취업기회 자체보다 “정규직” 혹은 “좋은 일자리”에 취업이 매우 어렵다는 것임. 따라서 청년층 취업지원정책의 대상을 “정규직”과 “좋은 일자리”로 이동하고자 경력개발을 희망하는 청년층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정책 방향은 여성에게 더 유효하며, 양질의 취업 기회에 대한 성별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여성의 경우 30대가 되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결혼, 임·출산이라는 여성적 특성 이외에도 일자리가 불안정하거나 좋지 못한 일자리이기 때문에 자신의 경력개발상 장기적인 비전을 찾기 어렵기 때문임. 따라서 미취업자 뿐 아니라 비정규직 즉 좋지 못한 일자리에서 보다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꾀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

취업지원정책이 현재와 같이 미취업자로 한정하는 경우에 정책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집단에 보다 많은 기회가 부여되어야 할 것임. 여성 청년층의 경우 고졸자보다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 집단과 인문사회계 졸업자 집단, 4년제 대학 재학생의 경우 교육계 또는 예체능계열, 비수도권 대학 학생 등 취약집단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높음.

제안2)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내용에 관한 제언

청년고용정책의 유형을 1) 진로개발 및 취업지원사업, 2)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3) 미취업자 고용확대사업으로 구분했을 때, 국회예산정책

처의 청년일자리사업 평가 보고서(하현선, 2013, p.22)에 따르면, 미취업자 고용확대 정책의 예산이 가장 많고(8,281억 6,900만원), 다음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4,555억 700만원)의 예산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진로개발 및 취업지원사업과 같은 고용서비스에 활용되는 예산은 757억 5,900만원으로 다른 두 정책영역에 소요되는 예산에 비하면 매우 작음.

대졸 청년층의 일자리 안착에 도움이 되는 취업준비활동의 유형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가장 광범위하게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 활동은 진로개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고, 직업훈련경험도 여러 집단에서 일자리 안착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위의 세 가지 유형의 정책 중에서 효과가 보다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유형의 예산 비중과 정책수혜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여기에 해당되는 정책은 1)진로개발 및 취업지원 사업과 2)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이며, 현재 이 두 유형의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규모는 직접 일자리 지원정책의 예산보다 훨씬 적음.

일자리 경험은 신규대졸자의 초기 일자리 이동에서만 아니라 장기 미취업자의 취업과 정규직으로 이동에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음. 인턴제와 같은 직접 일자리 지원정책보다 진로개발 및 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정책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남녀 미취업 청년층의 정책수요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특히 여성 청년층의 정책수요와 정책서비스 공급 간의 질적 미스매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임.

여러 가지 취업준비활동 중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광범위하게 나타난 활동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러한 활동은 1) 대학 재학 중에 유익한 진로-취업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 2) 재학 중에 자격증 취득, 3) 직업훈련경험으로 나타남. 반면 재학 중 일자리 경험은 긍정적 효과가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났고 부정적 효과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경험이 졸업 후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의미함. 따라서 미취업 청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정책을 확대하는 것에 주의가 필요하며, 기존 정책들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엄밀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음.

제안3) 청년층 취업기회의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제언

가.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통한 격차 해소 방안

지금까지 성인지예산정책과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는 남성과 여성 간 수혜여부가 공평한지에 초점을 두었으나 앞으로는 정책투입의 결과로 발생하는 성과를 보다 집중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부분의 정책들이 “취업률”을 성과지표로 하고 있는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취업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취업률을 기대하는 것은 여성 청년층 참여에 불리할 수 있음.

성평등 관점의 정책투입과 성과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청년층 취업지원정책에 관한 범정부 의사결정기구에 여성가족부 대표가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관련 정책평가기구에 여성 청년층 고용문제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할 것임.

취업지원정책의 투입과 성과를 성평등관점에서 평가하기 위해 기초자료의 수집이 중요함. 청년고용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한 지 10여 년이 되었으나, 세부사업별로 성별 참여현황을 파악한 자료가 부재하며, 자료의 활용 및 접근 자체도 어려운 실정임. 현 정부는 “정부 3.0” 정책을 통해 국가가 가진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함은 물론 정부부처 간에도 정보 공유와 협업을 추구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주요 부처 간에도 여성 청년층 취업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 공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범정부차원에서 사업관리 실적관리 프로토콜 개발과 활용이 필요함.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추진 실적조사가 프로토콜에 맞추어 진행되고,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투입과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청년층의 취업기회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개선 프로세스를 개발해야 할 것임.

나. 여성 청년층 대상의 특성화 정책을 통한 격차 해소 방안

성별, 대학유형, 전공계열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집단별 특성화된 취업준비지원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여성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전달체계를 보강할 필요가 있음.

현재 여성 청년층을 대상으로 특성화된 정책사례는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여대생커리어개발 지원사업”이 유일함. 여대생커리어개발 지원사업의 확충과 본 연구결과 나타난 자격증 취득과 직업훈련 경험이 좋은 일자리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반영해 “유망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과 취업이 어려운 인문사회계, 예체능계 여대생을 중심으로 하는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안함. 현재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정책은 많으나 대학 재학 중에 직업훈련에 참여한 대졸자는 10% 미만으로 매우 소수임. 따라서 맞춤형 직업훈련 정책대상을 여대생으로 확대하는 한편, 졸업 후 미취업자 집단으로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4 기대효과

본 연구는 미취업 여성청년층의 취업준비활동 실태를 분석하고,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는데 효과적인 취업준비활동을 찾아내어 여성청년층에 특화된 취업지원정책을 제시하였음. 이에 따라 미취업 청년층 대상의 취업지원서비스 및 직업훈련 정책의 질 제고를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청년층 고용률 성별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참고자료



신선미·민무숙·권소영·고혜원(2013). 미취업 여성청년층의 취업준비활동 효과와 취업지원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관계부처 : 교육부 취업창업교육지원과, 청년위원회